

101  Since
1908-5.1
기독교대한감리회
청파교회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2009년 교회표어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예 배 순 서

【사순절 제5주】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오소서, 평화의 임금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2(통48). 만유의 주재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태초부터 오늘까지 변함없는 모습으로 역사를 주관해 오시는 성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마음을 달리 하는 우리들입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고 싶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신 말씀의 씨앗을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인내를 통해 믿음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키워가는 이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경축하며 살아가라 선물로 주신 삶을 허덕이며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의지하며 살아가라 허락하신 이웃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점점 각박해지는 세상이지만 어딘가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소망을 품게 하시고 힘찬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7:15
♠ 교 독 문	128. 사순절(5)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대표기도	I. 김민주 선생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303(통403). 날 위하여 십자가의
성경봉독	I. 마5:21-24
	II. 히5:1-10
찬 양	강순배 권사
말 씬	I. 천국의 열쇠
	김재홍 목사
	II. 이 세상 어딘가엔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함께

찬 송	특송	방민 방준
♠ 봉 헌	317(통353). 내 주 예수 주신 은혜(1,5)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의 부족한 모습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부족함을 성숙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신 주님이 계시기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때로는 가야할 길이 멀고 힘겹게 보여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밝히시고 맑히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멘.		
♠ 찬 양	<주의 기도>.....	다함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신약성서 맥잡기 / 김기석 목사	4월 기도의 밤
기도 : 최윤희 집사	인도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 배 위 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방 준 선생 김인걸 장로	인도자 김훈동 권사

3월	영접위원	김인걸 홍순구 박규석 안홍숙 박경선 오자영
	헌금위원	한완식 박홍재(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어머니는 똥대장”

해발 620미터인 이곳에 처음으로 진달래가 핀 날, 어머니 새참 드리는 것도 잊고 어둑발이 질 때야 집에 돌아왔다. 나 일하기 좋은 날이라고 해서 어머니 돌보는 일을 잊어버린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루에는 똥이 묻은 아래위 겹옷과 속옷이 쌓여 있었고 방안에도 어머니가 움직이신 길을 따라 똥칠이 되어 있었다.

똥을 눈 지가 오래되는지 작은 똥덩어리는 딱딱하게 말라붙었고 손이나 발에도 똥칠갑이었다. 어머니는 불도 켜지 않고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내가 왔지만 돌아보지도 않은 채 돌부처처럼 가만히 있었다.

첫 봄꽃에 취해 일하는 자식을 차마 똥치우러 오라고 전화로 부를 수가 없었을까. 똥을 이렇게 많이 누었으니 당황해서 전화할 생각조차 못한 것일까. 위급할 때 쓰이지 못한 전화기는 방 다른 쪽 구석에서 어머니처럼 풀이 죽어 웅크리고 있었다.

방에 군불 때야지, 저녁밥 지어야지. 빨래는 내일 하더라도 방에 있는 똥 닦아 내야지, 뭘 먼저 해야 할지 참 난감했다.

어머니한테 다가갔다. 똥이 발에 밟혔다. 고개를 돌려 나를 올려다보는 어머니 얼굴이 반쪽이었고 훨씬 굵어진 주름들이 얼굴을 뒤덮고 있었다. 어머니 곁에 가만히 쪼그리고 앉아 눈높이를 맞추었다. 어머니 눈은 겁을 먹고 있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겁먹은 눈초리.

그것은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였다.

어머니 어깨를 감싸고 꼭 안았다. 울컥하고 울음이 솟았다. 어머니가 천천히 돌아앉으며 내 팔을 잡았는데 미끈거리는 똥의 감촉이 전해져왔다. 어머니 얼굴에 불을 대고 속삭였다.

“어무이 똥재이.”

이렇게 말해 놓고 보니 우스웠다. 그래서 웃었다. 그러자 눈물이 불을 타고 굴러 내렸다.

“어무이 똥박사~”

소리를 높여 말하자 이번에는 어머니가 알아들었나 보다. 어머니 굳어

있던 얼굴이 풀렸다. 어머니도 내 웃음에 감염되었는지 따라 웃었다.

“어무이 똥대장~”

다시 소리쳤다.

우리는 서로 똥 묻은 상대를 손가락질해 가며 마구 웃었다. 불을 환히 밝히고 보니 여기저기 발린 똥덩이들이 몇 년 잘 묵은 된장 같았다.

“아여~ 말이다. 그노무 영감태기들이. 허연 도포를 입고 샷갓을 쓴 영감 태기들이 셋이나 와서는 말이다.”

어머니는 고자질하듯이 내게 사연을 털어 놓기 시작했다.

“내 뉘끼를 잡고는 한 놈은 밀고 두 놈을 땡기고 캄서 하는 말이 응, ‘죽어야 할 사람이 여기서 머하냐’고 하는 기라.”

나는 무슨 애기가 하고 왈각 가슴이 졸여왔다.

“자꾸 같이 가야 한다고 이것들이 잡채는데 이길 수가 있어야지.”

“아니, 저런 나쁜 놈들이! 그래서요?”

“아여~ 내가 그래서 말이다, ‘여기는 우리 작은아들 집이오’했더니 아여 그놈들이 그래도 가자고 잡아끄는데 안 간닥꼬~ 안 간닥꼬~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옷이 다 벗겨지고 막 그랬다 아이가.”

“아, 그래서 똥도 나오고 그랑기라요?”

“그랑께 똥이 나도 모르기 쑥 나와빠고 그랑기지 내가 무다이 싹기 아이라.”

“이노무 영감태기들 다 어디로 갔어요. 네? 이 양반들이 여기가 어디락꼬 와서. 이 못된 놈들이. 이것들 내가 혼꾸멍을 내야지!”

나는 당장이라도 달려갈 듯 법석을 떨었다. 어머니는 내 기세에 좀 마음이 놓이는지 두세 번이나 그 영감태기들이 다시 안 올 건지를 되물었다.

나에 대해 먼저 긴장을 놓은 어머니는 저승사자 공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듯했다. 긴장이 다 풀어진 어머니는 저녁도 안 드신 채 모로 누워 잠이 드셨다. 뒤늦은 밥상을 차려놓고 몇 번 흔들어 봤더니 꼭 젖은 짚단 같았다. 눈도 뜨지 못하고 눈썹만 꿈틀거리다 말았다.

- 전희식, 「똥꽃」 중에서

※ 「똥꽃」은 농부 전희식이 치매 어머니와 단 둘이 시골에서 살면서 체험한 자연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화의 강

사람이 사람을 만나 서로 좋아하면
 두 사람 사이에 물길이 튼다
 한 쪽이 슬퍼지면 친구도 가슴이 메이고
 기뻐서 출렁거리면 그 물살은 밝게 빛나서
 친구의 웃음소리가 강물의 끝에서도 들린다

처음 열린 물길은 짧고 어색해서
 서로 물을 보내고 자주 섞여야겠지만
 한 세상 유장한 정성의 물길이 흐를 수야 없겠지
 넘치지도 마르지도 않는 수려한 강물이 흐를 수야 없겠지
 긴 말 전하지 않아도 미리 물살로 알아듣고
 몇 해쯤 만나지 않아도 밤잠이 어렵지 않은 강
 아무려면 큰 강이 아무 의미도 없이 흐르랴
 세상에서 사람을 만나 오래 좋아하는 것이
 죽고 사는 일처럼 쉽고 가벼울 수 있으랴

큰강의 시작과 끝은 어차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물결을 항상 맑게 고집하는 사람과 친하고 싶다
 내 혼이 잠잘 때 그대가 나를 지켜 보아주고
 그대를 생각할 때면 언제나 싱싱한 강물이 보이는
 시원하고 고운 사람을 친하고 싶다

- 마중기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장로 :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해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김철수 유영남 한상익 정영선 곽상준 최경미 구명자 김정길 최숙화
 문복순 최현선 박규석 박경선 박영희 박지인 안정숙 임승동 백혜숙
 박효선 이건식 신영신

월정헌금:

김순자 박석희 조항미 서정순 이성범 장재영 김재영 하현철 최성애
 문홍일 박상규 김지현 김지은

감사헌금:

방문성 박혜경 한훈식 권채영 안정숙 정현창 고재중 권미숙 박병구
 왕성환 강순배 박애순 문홍일 박시내 고유비 무 명

생일감사헌금:

최숙화 김미순 윤형준

녹색꿈 헌금:

무 명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송임희	연합속회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노순옥	
안디옥	임정자	임정자	이소순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김명순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진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백묘현	
시온	박효선	허정윤	김정숙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이기분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이순정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황선희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오현정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정영선	
갈라디아	유경순	김명희	박옥식	
고린도	이영란	이영란	이영란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박혜경	

■ 교/회/소/식 /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사순절** :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말씀과 기도 생활에 더욱 힘쓰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밤** : 4월 1일 수요집회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3. **연합속회** : 4월 연합속회가 3일(금) 오전 11시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예배인도 - 안디옥 속 식사준비 - 예루살렘 속
4. **종려주일** :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5. **선교회** : 다음 주일 오후 모임은 선교회별 월례회입니다.
6. **새벽기도** : 사순절 특별새벽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도의 순례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7. **신앙실천** :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입니다. 자전거를 타보세요. 아직 못 타시는 분들은 배워보세요. 자전거 타기를 생활화하면 나도 지구도 건강해 집니다.

* 식당 봉사 : 엠마오 속 (다음 주 : 에베소 속)

* 설거지 봉사 : 조순덕 이준하 (다음 주 : 곽상준 최경미)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아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치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